

전남·광주 결국은 또 민주당...일극 체제 '철옹성'

① 선택 6·3

초대 통합특별시장·시의원 민주 일색
전남 기초단체장 5명만 '非민주' 당선
무투표 당선 80명...광주 최저 투표율
기초의원은 진보·혁신·무소속 약진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정치권 전반을 석권하며 변화하는 호남 정치 지형 속에서도 일극 체제를 재확인했다.

▶ 관련기사 2·3·4·5·6·7·8·9·10면

이번 선거는 전국 최초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 재편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중심의 기존 정치 구도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을 비롯해 대부분 기초단체장까지 압승하며 지역 권력 지형을 사실상 장악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국민의힘, 무소속 등 비민주 진영 후보들이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정치적 변화를 계기로 민주당 독점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판세를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당선자들 5·18묘지 참배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 소속 당선자들이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전남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하며 이변을 연출했지만 비민주당 당선자는 22개 시·군 가운데 완도군수 김신(무소속)·장흥군수 사순문(혁신)·신안군수 김태성(혁신)·강진군수 강진원(무소속)·광양시장 박성현(무소속) 후보 등 5명에 그쳤다.

특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와 조국혁신당의 '호남 정치 개혁'을

앞세운 공세가 변수로 작용했지만 민주당의 조직력과 지지층 결집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지역 정치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민주당 중심 구조가 철옹성처럼 견고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줬다.

선거 과정에서 공천 잡음에 따른 정치 개혁 요구가 빚발쳤음에도 유권자들은 또다시 민주당을 선택한 셈이다.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경쟁 구도 측면에서 한

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에서 전남·광주지역은 경쟁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80명에 달했다. 후보 등록 단계부터 승패가 결정돼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지방선거의 경쟁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54.3%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전국 꼴지를 기록했다. 전국 투표율 61%에 비해 6.7%p나 낮은 수치다.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참여 열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 중심의 고착화된 정치 구도와 선거 경쟁 약화, 정치적 긴장감 저하, 정책 검증 기능 약화 등이 반복되면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 2면에 계속

/김재정·변은진 기자

與 지방권력 교체...서울 내줘 '찝찝한 승리'

국힘 오세훈, 민주 정원오에 '대역전'

경기지사 추미애·부산시장 전재수 勝

국회의원 재보선 민주당 9곳·국힘 4곳

한동훈 입성·조국 낙마...희비 엇갈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승리하며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완패를 설욕했으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해 '찝찝한 승리'라는 평가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총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각각 차지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보선

을 치른 14곳 중 13곳은 민주당 의석이었고 1곳만 국민의힘 의석이였다.

수도권 3곳 가운데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경기와 인천에선 민주당이 각각 승리했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친 끝에 이겼다.

오 후보는 개표 내내 정 후보에 뒤지다 개표율 93% 가량을 넘긴 시점에 첫 역전에 성공한 뒤 승리까지 굳힌 대역전 드라마를 썼다.

경기지사 경쟁에선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승리해 여성 첫 광역단체장 자리에 올랐다. 인천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당선됐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지로 예측된 부산시장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눌렀다. 이밖에 민주당은 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우상호(강원지사)·박수현

(충남지사)·신용환(충북지사)·위성곤(제주지사)·김상욱(울산시장)·허태정(대전시장)·조상호(세종시장) 후보가 당선됐다.

전북에서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51.22%)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41.78%)를 눌렀다.

국민의힘에선 5선 도전에 성공한 오 후보 외에 이철우 후보가 경북지사 당선을 확정했다.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박빙 대결을 벌인 끝에 승리했다.

경남지사 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민주당 김경수 후보에 앞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2022년 국민의힘에 당한 '15대 2'의 대패를 고스란히 되갚아 준 셈이지만, 서울시장 패배로 빛이 바랬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민주당 9곳, 국힘 4곳에서 승리했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지역	민주당(12)	국민의힘(4)	무소속(1)
인천	박정호 52.84%	유정복 46.06%	
경기	정원오 48.34%	오세훈 48.94%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경남	김경수 51.22%	김부겸 41.78%	
전남	민형배 79.01%	이정원 11.68%	
전북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제주	위성곤 63.11%	문성유 33.56%	
울산	김상욱 48.59%	박민수 51.40%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대구	김부겸 51.22%	추경호 41.78%	
경북	이철우 53.48%	이장우 44.15%	
충북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청	신용환 51.40%	김관영 41.78%	
충남	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대전	허태정 51.22%	김관영 41.78%	
세종	조상호 61.03%	최민호 36.01%	
부산	전재수 51.22%	박형준 41.78%	